

지역 소식통

정읍시,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회의 개최

정읍시는 29일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정읍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구성하고 반부패 청렴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 청렴추진단은 이학수 정읍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실소속장 등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회의체다. 이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반부패·청렴 시책 이행률 제고 및 반부패·청렴 시책 홍보·확산 등 청렴 시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소통과 신뢰로 내 삶을 바꾸는 청렴도시 정읍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보름달물해파리 구제 어업·인명피해 예방

부안군은 전라북도 전 해역에 발령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가 단계별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구제어업 참여어선을 모집하고 28일부터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했다.

해파리 발생 원인은 새만금호에서 대량 증식된 해파리 유생(플립)이 해파리 성체로 성장 후 새만금호 해수 유통에 따라 연안해역으로 배출되어 대량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구 손상, 혼획에 따른 수산물 품질 저하, 해수욕객 쓰임 사고 등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구제작업은 주요 발생 지역인 새만금 인근 해역 및 위도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 예찰 결과와 해상기상 여건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포획된 해파리는 해상에서 분쇄·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6.28일 하루 포획 물량은 약 128톤에 달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창군, 7월1일 읍성광장서 기념행사 개최

고창군이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기념행사'를 오는 7월1일 저녁 7시 30분 고창읍성 광장에서 연다.

이번 기념식은 병마위 등 지질명소 13곳이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국내 유일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고창 대표 국악

뮤지컬인 '이팝:소리꽃' 공연과 7가지 보물과 관광객, 군민이 함께 어울러지는 대규모 축하 퍼포먼스, 우리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씨의 축하공연, 국내 최정상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레스텔라(Forestella)의 축하공연 등이 준비됐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7가지 보물을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고창군민, 수많은 관광객이 관심과 참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고창군 대표관

광자인 고창읍성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유산과 더불어 고창읍성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고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세계기록유산과 세계지질공원이 연달아 등재되어 고창군은 국내 유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7가지 보물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고창군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현안사업 추진 탄력

고창군이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23억원을 확보해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고창농약전수관 증축(10억원) △고인돌 박물관 미디어아트 체험존 구축사업(6억원) △홍덕 송내소하천 정비사업(7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23억 원을 확보했다.

'고창농약전수관 증축사업'은 성송면에 위치한 고창농약전수관 부지 일원에 숙숙 공간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매월 전수 교육 신청자 150명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전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 문화예술 체험형 체험 공간을 확보한다.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고인돌박물관 미디어아트 체험존 구축사업'은 고인돌박물관 내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설 미디어아트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설 콘텐츠로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증가를 모색하는 물론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의 보물 7건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힐 전망이다.

'홍덕 송내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제방 월류 등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있던 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동립저수지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찾아가 필요성과 사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로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여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3년 하반기 정기 인사 단행

승진 61명 · 전보 190여명, 시정 이끌 수 있는 직원 승진 우선순위... 생산적인 조직 조성 강조

정읍시가 2023년 7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퇴직준비교육 등 요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승진 인사 61명, 전보 인사 190여 명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승진 인사는 임용하고자 하는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에서 직무성과, 나이, 성별, 직위·시민과의 소통 능력, 승진 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직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했다.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직렬과 격무 업무 담당자, 전문관 여성 공무원 등을 우대했다.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총 직렬별 인원 중 현재 비율을 감안

해 그간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던 사회복지, 세무직을 이번 인사에 배려했다.

민선 8기 이학수 시장 취임 후 1년 동안의 인사에서는 공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사 관련 청탁 근절 노력이 돋보인다.

이 시장은 인사청탁 근절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인사 청탁 시 승진 배제 등의 원칙을 지켰고, 또한 직급·직렬별 전체 간담회를 거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시장은 그간 인사 청탁 근절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차기 정기 인사부터

는 승진 임용 법정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인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부분 발탁인사도 시행해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보인사는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추진력, 전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정읍시가 깨끗하고 공정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시장이 아닌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정읍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기재부 찾아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심덕섭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사업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심 군수는 29일 기재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릴레이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에 담길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인식 확산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고창갯벌

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200억원)을 비롯해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176억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랍사르 운곡습지의 관리와 생태교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랍사르 운곡습지센터 건립사업(80억원), 자연재해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육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5억원)' 등 지역 내 급박한 현안사업들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지역예산이 다뤄지는 다음달 하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예산안에 현안사업을 최대한 담겠다는 전략이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한 부처단체에서 충분히 설득하며 이제는 부처와 함께 공조하여 향후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화로 넘어가는 9월까지 문턱이 닳도록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멜론 · 망고,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 대상 수상

고창군의 멜론과 망고가 29일 서울 코리나호텔에서 열린 2023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고창 멜론과 망고는 각각 7년 연속, 6년 연속 수상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가치를 드높였다'.

고창멜론은 수박에 이은 최고품질 품으로 육성하고자 각종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최고품질 멜론 재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자 또한 이에 발맞춰 고창멜론연합회(2019년 결성)를 활성화하고 모든 생

산자가 주경야독하며 품질의 향상병 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싱가포르 등 해외로 수출을 추진해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망고 주산지로 고품질 망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망고의 영양적 가치와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400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전복의 약 73%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생산물량은 1700여 톤에 달한다.

또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황토망고, 많은 일조량과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망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